

2. <정년교수 대표인사-환경대학원 박종화 교수>

금년 8월에 정년퇴임하는 27인 교수의 대표로 선발되어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정년퇴임하는 것도 과분한 영광이며, 기라성 같은 지성과 석학을 대신하여 인사하게 된 것은 Lotto 당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맹자의 君子3樂을 배웠고, 저 자신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양친 부모가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합니다. 국회 청문회나 언론을 통하여 제가 망신을 당하거나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일도 없습니다. 천하의 영재를 교육하는 즐거움과 연금을 받는 소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금상첨화 격으로 성대한 교수 정년식을 베풀어 주시고, 훈-포장-표창장과 기념품을 주시는 성낙인 총장과 모든 교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1985년 8월의 교수임용식에서 읽은 선서를 발견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다수의 석-박사 제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UN에 가입하지 못하고도 UN창설기념일을 공휴일로 쉬던 나라에서 단기간에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고, UN사무총장을 배출하고, OECD 회원국이 되고, 올림픽경기와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동문은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본교의 국제 대학평가 순위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본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 덕분에 저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긍지와 보람을 느낍니다.

막상 정년퇴임을 하게 되니 아쉬움도 많습니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것으로 자부하던 서울대학교가 소위 SKY 대학의 하나에 속하는 대학으로 격하되고 말았습니다. 학문적 수월성과 대학원 중심교육을 표방하였지만 대학원 입학생 중에서 SKY 대학 출신자의 비율이 감소되는 추세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가성비가 최고라면서 한국기업을 칭찬하는 사람이 많이 만났지만, 서울대학교가 최고라는 칭찬을 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칭찬하는 외국인은 인사치레로 lip service를 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조경학과 환경과학을 공부하던 198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유색인종과 중국계 유학생은 희소한 실정이었습니다. 교육 투자 대비 보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회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저의 분야 최신 저널에서 중국계는 약진을 하였지만 한국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서

울대학교의 국내외 위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흑인해방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한 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I have a dream” 이라는 1963년의 대중연설을 빌려서 저의 꿈 세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대학교 교수와 동문 중에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신라의 김유신, 조선의 이순신같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국민적 갈등구조의 해소, 남북통일, 지정학적 리스크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변모시킬 수 있는 능력, 애국심, 소명 의식이 투철한 다수의 엘리트 지도자를 양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서울대학교 교수 혹은 동문 중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노벨상수상자가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의 도쿄대학교, 교토대학교, 나고야대학교도 노벨상 수상자 3명 이상씩 배출하였습니다. Wikipedia에 의하면 나가사키대학교, 북해도대학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Copenhagen 대학교의 소박한 2층 벽돌집 건물 전면에 나열된 흉상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였더니 이 대학의 동문 11명이 노벨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2014년도 Times 세계대학순위는 44등이지만 이 대학은 50위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학교설립 당시에 노벨상 수상자 흉상 받침대를 교정에 설치한 포항과기대 출신이 먼저 노벨상을 수상한다면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장께서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명예교수를 우대한다는 선거공약을 잘 실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교수 중에는 1967년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 개인 혹은 가문의 생계 걱정보다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여 학과를 선택하신 분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연구를 지속하고 싶습니다. 연금을 받으니 많은 보수는 필요하지 않으며, 명예교수실 배정을 기다리면서 시일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정년퇴임하도록 도와 주신 가족, 동료교수, 직원, 동문과 재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박종화 교수